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영적 전쟁의 핵심 성경: 다니엘 1장 17-21절

Tag:

17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18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왔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19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20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십 배나 나은 줄을 아나라

21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단1:17-21)

다니엘은 유다가 망하고 왕족과 귀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함께 끌려간 사람이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나중에 신하로 부러먹기 위해서 포로들 중에서 뛰어난 인재를 추려서 특별교육을 시켰는데 다니엘이 그들 중에 있었다.

다니엘의 조국은 망하였고, 그는 타국에 가서 다른나라의 왕에게(그것도 조국을 멸망시킨 나라의 왕에게) 충성을 다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그러나 다니엘에게는 모든 나라는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믿음이 있었다. 다니엘이 다른 나라에 가서 충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모든 권력의 중심이심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다니엘이 조국에 대한 충성심과 민족성을 상실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유대민족은 포로기 기간 중에 성경책을 중심으로

더욱 민족적 특성을 고취시키며 단결력을 보여 주었다. 유대민족의 특성이 성경책을 통해서 더욱 강력하게 그 독특성과 우수성을 드러난 셈이다.

다니엘을 비롯해서 함께 왕궁에서 공부하게 된 세 친구들은 환관장에게 인정을 받아 오히려 채식을 하면서 더욱 뛰어난 재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것 또한 성경적 사상으로 말미암은 경건의 능력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다른 민족의 다른 학생들은 왕의 진미에 취해서 공부를 게을리 했을 가능성이 크고, 내가 굳이 이 나라에서 충성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모든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사상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을 위해서도 충성을 다할 수 있었으며, 결국 이러한 헌신을 바탕으로 왕들의 신임을 얻어내서 후일에 다시금 고국으로 귀향할 수 있게 되었다.

시대나 지역이 다르더라도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며, 어느 나라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충성하고 헌신하는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부강함과 번영을 주신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어느 지역이나, 누가 통치하느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국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는 나라의 안위가 우선이요, 둘째는 공무원들이 부정과 부패에서 떠나는 것이요, 셋째는 국민 대다수가 법을 잘 준수하며 국론이 분열되지 않는데 있다.

다음으로 나라가 부강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혁신이 일어나야 하고, 기득권 세력들에 의해서 의사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의사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시장이 보이지 않는 손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해석할 수 있다. 시장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해서 생사화복의 주관자로서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감당하신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 까지 보시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지혜롭고 똑똑한 자는 많으나, 열심히 공부하여 지식을 쌓는 자는 많지 않다. 또 그 중에 청렴결백하여 부정과 부패에서 떠난 자도 많지 않다. 또 그 중에 충성심도 있으며, 정의감도 있고, 희생정신도 있고, 책임감도 겸비한 소위 인격자는 많지 않다. 또 그 중에 영적으로 뛰어나서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자는 많지 않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많지 않은 자들 중에서 뛰어난 자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결국 하나님을 섬기며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잘 깨달아야 한다. 영적 전쟁의 핵심에도 경건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즉, 경건한 삶이 가정이 복받는 핵심이며, 일터가 형통하는 핵심이며,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핵심이며, 나라가 부강해지는 핵심이다. 경건한 사람이 많은 사회가 혁신을 성공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그리고 그 기초단위가 경건한 가정이다. 경건한 가정에서 다니엘과 같은 인재가 자라기 때문이다.

17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은 한 민족만 편애하시는 분이 아니다. 특정한 민족을 선한 도구로 삼으실 수는 있어도 그 목적은 모든 족속들에게 복을 주시려는 의도에서 그렇게 하신다. 하나의 민족이 망했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망한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특별한 재능을 주셔서 공부를 잘 하게 하셨다. 공부를 잘 하는 재능도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들

은 허송세월하거나, 세속적인 일에 마음을 쏟지 않고, 시간을 빼앗기지 않는 자들이 된다. 대부분의 정력을 공부하는데 쏟기 때문이다.

21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나라

가장 뛰어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만 신임을 받은게 아니었다. 그는 약 70여년에 걸쳐 고레스 왕에게까지 신임을 받아 나랏일을 하였다. 물론 그에게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강직함, 정의로움, 청렴함, 올곧음, 신실함 등의 성품이 있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역시 경건함이다.

그의 경건함 때문에 다른 성품들도 빛을 발하게 되었고, 그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환상과 꿈을 이해하는 능력까지 빛을 발하게 하신 것이다.

즉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만의 독특한 성품이나 재능이 있는데, 경건함이 그런 성품과 재능으로 하여금 빛이 발하게 한다. 자신만의 뛰어난 성품이나 재능이 없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그 성품이나 재능이 빛을 발하려면 경건해야 한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더 큰 복을 주신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그가 일하는 곳에서 인정을 받게 하신다. 일과 관련해서 혁신을 이루게 하신다.

문제는 이런 혁신을 이룬 자들을 담아내는 그릇이 그 나라에 있느냐는 것이다. 그런 혁신을 지원하는 법이 있는가? 그것을 인정하는 통치자가 있는가? 사회적으로는 혁신의 산실이 있는가? 즉, 그 혁신을 실험할만한 재력이 있는가? 기술이 있는가? 실패하더라도 망하지 않을 수 있는 여력이 있는가가 참으로 중요하다.

역사를 보면 그 나라에 그런 통치자나 그런 사회적 그릇이 없을 경우에는 이 혁신을 이룰 수 있는 자들은 가차 없이 그 나라를 떠나 그런 사회적 환경이 마련된 나라로 망명하고 만다. 정치적인 상황을

바꾸기란 쉽지 않을뿐더러 너무 많은 세월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과거 스페인과 프랑스는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나라로 유명하다. 스페인에 살던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은 네델란드로 이주하여 그곳에서 무역과 금융의 꽃을 피웠다. 프랑스에 살던 기독교인들은 영국에 가서 산업혁명을 일으켰고, 스위스에 가서 시계산업과 금융산업을 일으켰다.

영국에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자 그들은 신대륙으로 이주하여 미국을 건설하였고, 1,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유럽의 수 많은 기술자, 지식인들은 미국으로 몰려들었다. 그래서 미국이 혁신을 이룰 수 있는 발이 형성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하였다. 김일성이 북한을 접수하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였다. 당시 북한 사회의 지식인들은 대부분 기독교인들이었는데 6.25 사변까지 총 최소 150만명 정도가 핍박을 피해 월남하였다. 그러자 지력이 형편없이 떨어진 북한은 지금까지도 나라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시에는 사회간접자본이나 지하자본이나 중공업 부분은 북한이 훨씬 좋았다. 그러나 지력을 소유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한에 몰려들었고, 혁신을 이룰 수 있는 발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런 지식인들의 대부분이 경건한 기독교인들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혁신을 이룰 수 있었다.

이제 세월은 흘러 남한에는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고, 이들은 좌익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좌익적 마인드란 사회주의적이고 공산주의적인 사상이다. 은근히 북한편을 드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세계적으로 볼 때 좌익 사상가들은 혁신보다는 공평한 분배에 너무 몰두해 있었다.

우리나라에도 좌익 성향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가 있는데 그 결과는 소위 말하자면, 소수이익단체들의 결집으로 인한 기득권 차지가 그것이다.

엄밀히 말해 이것은 공평한 분배 보다는 집단 기득권자들이 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주로 데모를 통해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켜 왔다. 데모를 하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현상이 많아졌다. 교사들이 힘을 합하니 전교조의 요구를 들어 주었다. 택시 조합이 힘을 합하니 기존의 택시 업자들만 운송업을 하도록 해 주었다. 강성노조는 이제 귀족노조가 되었고, 언론에 종사하는 자들도 앵무새가 되어 선별적 보도만 일삼게 되었고, 농민들도 단합하였고, 법조인들도 단합해서 자기들만의 이익을 위한 철옹성을 쌓았다.

그러나 역시 역사는 경건한 자들에 의해서 진진한다. 세상에 사회주의자들이 아무리 많아도 경건한 자들을 감당해 내지는 못한다. 그러나 경건한 자들의 숫자가 적어지거나, 경건한 자들이 더 이상 경건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될 때 그 사회는 낙후되기 시작한다. 지금의 영국과 동유럽과 같이 몰락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 경건한 자들은 사명을 가지고 자신의 경건성을 지켜야 한다. 오직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섭리하신다는 것을 믿고 자신의 경건성을 지켜야 한다. 하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스스로가 타락할까봐 걱정해야 한다. 좌익 사상가들이 득세를 하면 경건한 자들은 반사이익을 보게 되어 있다. 나랏돈으로 무분별한 복지를 펼치기 때문이다. 이때 경건한 자들은 열심히 일해서 자본을 축적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직 경건한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혁신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더욱 열심히 일하고 공부해야 할 것이다. 아멘.

18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왔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19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20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십 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21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단1:17-21)

<찬양예배>

제목 : 성경:

Tag:

10 내 아들이 악한 자가 너를 쫓더라도 따르지 말라

11 그들이 네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
어 기다리다가

12 스올 같이 그들을 산 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
들 같이 통으로 삼키자

13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14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
만 두자 할지라도

15 내 아들이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네 발을 금하
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잠1:10-15)